

익산 동물의약품 메카 시동

전북대, 동물헬스케어기업 등과 간담회... ‘익산 동물헬스케어연구소’도 개소

익산에 조성 중인 ‘동물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가 새 전기를 맞고 있다. 25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 따르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JBNU 지역발전연구원, 동물헬스케어 기업 12곳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 포괄적 협력이 나섰다. 지역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동반위하기 모여 산업 기반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티박바이오, 주영바이오, 케이팍스, 우진비앤지, 진셀바이오텍 등 동물의약품·의료기기·제조합 단백질·반려동물 식품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임상·인허가 절차, 전문 인력 부족, 지역 정착 문제 등 업계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익산이 ‘동물헬스케어 특화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이에 전북대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은 △공동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전



25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에서 동물헬스케어 기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문 인력 양성 △규제 합리화 및 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주)이스티박바이오 박승문 대표는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인허가·전문인력 문제를 대학과 함께 풀 수 있다면, 익산이 전국 단위의 동물헬스케어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책

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연구 인프라와 인재 양성을 통해 클러스터가 지역 산업으로 뿌리내리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대학30사업과 연계한 동물헬스케어 특화 인재양성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 이전 기업의 정착 지원과 창업·R&D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25일 오전 진안 오천초등학교에 방문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주제가 있는 공감토크’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별 ‘주제가 있는 교육공감토크’

유정기 권한대행, 진안 오천초 방문 시작으로 내달 19일까지 진행
진안서 농촌유학 활성화·완주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등 논의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25일 오전 진안 오천초등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도내 14개 시·군별 이슈(Issue)에 답하는 ‘주제가 있는 공감토크’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감토크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지역별 교육 현안을 주제로 현안 당사자 10명 내외와 소규모 대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진안 오천

초에서는 농촌유학을 주제로 학부모, 교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귀촌 유도를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농촌유학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에 대한 기여도 △농촌유학생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완주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겨 정서 위기학생 통합솔루션을 주제로 완주지역 교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우수사례 공유·확산

2025년 운영성과 보고회... 도내 15개 센터 업무 담당자 참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 치명자산상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1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주요 업무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전체 운영 보고와 주요 사업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으로 연결되는 특수교육 지원’을 주제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특강도 진행됐다.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교사들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사례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우수 운영 사



례를 보고했다. 이어, 의미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 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보는 퍼실리테이션이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과학교육원, 28일
도민 대상 공개 관측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강진순)은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전주시립과학관에서 ‘누구나 함께해요! 가을철 별빛산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관측실에서는 304mm 대형 굴절망원경으로 상현달을 관측할 수 있고, 보조관측실에서는 멋진 고리를 가진 토성, 달 등의 다양한 천체를 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천문교육마당에서는 멋진 천체 사진 및 영상을 관람하면서 천체 관측을 기다릴 수 있다. 천체투영관에서 반구형 돔스크린을 통해 별자리와 천문우주 관련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행사 관람은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커피 찌꺼기 활용 단열재 기술, 상용화된다

전북대 김성륜 교수팀, 폐 커피박 활용 친환경 생분해성 단열재 기술 개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부경하이텍과 1억원 상당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커피 찌꺼기를 단열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25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경하이텍(대표 정종균)과 1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손정민 단장, 정종균 대표, 기술 개발자인 김성륜 교수(대학원 탄소융합재료공학과)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탄화 커피박 기반 생분해성 단열재 원천기술을 자동차 경량 단열 부품 개발에 접목하는 것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전기차와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량·고단열 소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기술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륜 교수팀은 폐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다공성 탄소 기반 단열재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0.04 W/m·K 수준의 저열전도도, 친환경 용매 기반 제조 공정, 다공성 필러 복합화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건축, 모빌리티, 배터리 모듈 단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은 부경하이텍은 2022년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이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용 기능성 단열 부품, 경량 단열 내장재, 차체용 열안정화 소재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부경하이텍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술이전 계약을 계기로 △단열재 구조·성능 실증 △경량 단열 부품 공동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을 개발한 김성륜 교수는 “바이오 기반 단열재가 자동차 산업에 본격 적용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향후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해 친환경 단열 기술의 응용 범위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술 특허의 지분 20%를 보유한 김성진 박사과정생(탄소융합재료공학과)은 “학생 신분으로 개발한 기술이 큰 규모의 기술이전으로 이어지고, 또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돼 자부심과 희열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종균 대표는 “전북대의 독보적인 단열재 기술력과 당사의 제조역량이 결합해 새로운 기술 경쟁력이 창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시대가 요구하는 경량·친환경·고단열 성능을 갖춘 차세대 부품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손정민 단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전북대학교의 연구성과가 지역기업의 신사업으로 연결되는 대표적 산학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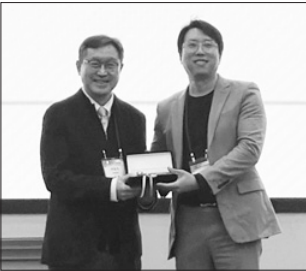
전북대 세포기능제어실험실 ‘기술이전 우수’

한명관 교수팀 운영... 아토피 결막염 치료제 기술이전 성사

전북대학교 한명관 교수팀이 운영하는 ‘세포기능제어 실험실’이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JBNU ETLA)’에 선정됐다. 25일 전북대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에 따르면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기술자산을 실용화하고, 연구자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실 기반의 ‘Lab to Market’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포기능제어 실험실은 아토피 및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 기업인 (주)티튜바이오와의 기술이전은 물론, 트



립토폰 테트라데실 에스테르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여드름 질환 예방·치료 조성물 기술 등 첨단바이오 분야의 중·대형 기술이전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김현태 교수
현미경학회 ‘우수논문상’

전주교육대학교 김현태 교수(과학교육과)가 최근 한국현미경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 교수가 2024년도에 응용 현미경 Applied Microscopy(SCOPUS) 저널에 발표한 연구로, 기수역과 조간대처럼 저산소와 고온이 반복되는 극한 서식환경에서 생활하는 풀망둑의 후각기관을 정밀 현미경 기법으로 분석해 이 어류가 어떻게 특수한 감각 구조를 발달시켜 생존해 왔는지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가 어류의 환경 적응과 진화연구에 의미 있는 학술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올해 재직자 AID 30+
집중캠프 성과공유회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지난 24일 ‘2025년 재직자 AID 30+ 집중캠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D 30+ 집중캠프는 재직자를 위한 AI·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AI 기반 사무자동화, 마케팅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의 역량을 단기간 집중 방식으로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학습자·교원·관계자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사업 추진 성과 △AID를 매개로 한 평생학습 확산 모델 구축 사례 △분야별 우수 이수자 발표 등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AI·디지털 활용 문화 확산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은성 기자

잔류성 화학물질 제거 미생물 균주 선별 성공

전북대 이광민 박사과정생

전북대학교 이광민 박사과정생(일반대학원 융합환경생명공학과, 지도교수 오병택)이 잔류성 화학물질인 델타메트린(deltamethrin)과 디부틸프탈레이트(DBP)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 균주를 선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과는 최근 열린 한국미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MSK2025)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며 복합오염 환경의 생물학적 정화기술 발전 가능



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농업과 산업 현장에서 병행 사용되는 두 물질이 토양·수계 등에서 함께 검출되고 있음에도, 복합오염 환경에서 두 물질을 동시에 분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은성 기자